

2023. 9. 2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21일 오전 06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처 장	한 우 희	031-960-0201
추모공원운영팀장	엄 대 중	02-3498-2500
운영팀장	최 경 렬	031-960-0210
관련홈페이지	www.sisul.or.kr → 시립승화원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추모시설에서 위로받고 싶을 땐 ‘온기우편함’ 찾으세요”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립승화원 등 추모시설에 온기우편함 설치

- 서울추모공원 1년 동안 약 1천여통 편지 이어져...시립승화원 등에 확대 도입
- 가족과 이별, 진로, 학업, 인간관계 어려움 등 사연에 ‘공감과 위로’ 손편지 답장
- 한국영 이사장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따뜻한 공감 공간 확대로 마음약자 위로할 것”

지난 8월초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2층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에 가슴아픈 사연이 담긴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했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뒤 투병생활을 했던 병원 중 환자실에서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아들과 이별의 아픔에 너무 가슴이 아픉니다.”

“외모와 스펙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러한 조건들 만으로 함부로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서울추모공원 온기우편함- 익명사연, 20대 청년)

“편지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자, 한 자 글을 써내려 간다는 것. 글씨에 담긴 시간과 마음이 진심이 되기에, 받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자고 쓰기 시작했지만 쓰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도 위로를 받고 있었다”

(온기우편함 사연에 답장 쓴 서울시설공단 직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 ‘온기우편함’ 을 신규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온기우편함은 서울시립승화원 1층, 용미리 1묘지 현장사무소 입구, 서울 추모공원내 유택동산 등 총 3곳에 설치됐다.
- 온기우편함 부스에는 편지지와 펜 등이 마련돼 있어 누구든 자유롭게 익명으로 고민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편지 하단에 주소를 쓰고 온기우편함에 넣으면 3~4주 후 ‘손편지’ 답장이 전달된다. 답장은 관련 워크숍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공감과 위로’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해 사연을 보낸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 서울시설공단은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리움을 털어낼 시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단법인 ‘온기’와 함께 지난 해 5월부터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및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2묘지에서 2개의 온기우편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년 동안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한 온기우편함에 도착한 편지는 약 1,000여 통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사연부터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관한 사연까지 다양했다.
- 서울추모공원의 온기우편함을 이용한 한 추모객은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추모시설에서 온기우편함에 편지를 썼는데, 제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담긴 정성스런 손편지 답장이 큰 힘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대 대학생의 고민이 담긴 편지를 보고, 역시 비슷한 고민을 20대 때 했던 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답장을 썼는데, 오히려 제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

되는 느낌을 받았다” 며 답장한 공단 직원의 사연도 있었다.

□ 올해에는 더 많은 추모객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서울 시립승화원 등의 추모시설에 확대 운영한다.

○ 서울추모공원 및 서울시립승화원 등에 설치된 온기우편함 이용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02-3498-2521)로 확인 가능하다.

□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추모공원에 설치한 온기우편함이 1년 동안 1천여 통의 사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확대 도입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추모시설의 공감 공간 확대에 마음약자 위로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시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자보호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관람약자’ 인 유아 동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엄마아빠 VIP존’ 을 새롭게 설치했고, 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색각이상자용 지도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등 약자 및 소수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첨부자료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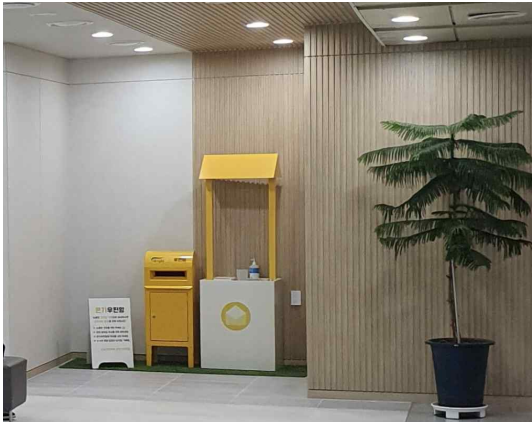
〈 서울시립추모시설 온기우편함 설치 사진 〉



서울추모공원 2층



서울추모공원 유택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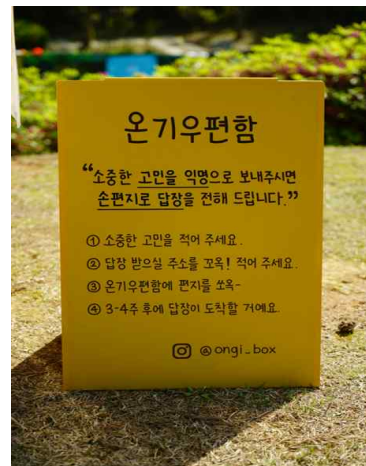
서울시립승화원 1층



용미리 1묘지



용미리 2묘지



용미리 1묘지 관련 안내표지판